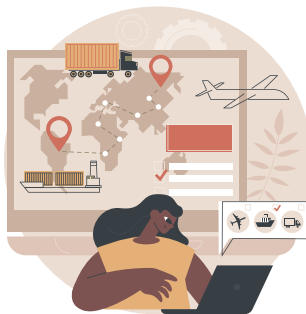


TRADE & ORIGIN REPORT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전망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전망



홍용택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부장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8월 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EU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스코틀랜드 턴베리(Turnberry)지역을 가리켜, 턴베리 체제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언급하였다. 아직 보편적·학문적으로 사용되진 않고 있지만 지난 7월말까지 실제로 EU 포함 69개 경제주체가 미국과 상호관세 등 양자 무역협상을 완료하였고, 이는 실제로 과거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칭하던 것처럼 트럼프라운드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당시 USTR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그의 저서 『No Trade Is Free』 서두에서 오하이오 호숫가에 위치한 아슈터불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의사였다고 밝혔다. 아슈터불라 지역은 철도와 석탄 운송 중심의 산업 도시였지만, 금융 및 산업 쇠퇴의 영향으로 점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저자는 과거 번영했던 아슈터불라의 모습을 서술하며 글로벌화와 제조업 쇠퇴 속에서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이 겪는 위기를 조명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저서를 통해 바라본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부흥이며 관세를 통하여 제조업의 회복과 철강,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경제안보 확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곳이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인데 2002년 9/11 이후 신설된 부처로 미국이 관세를 국경보호 등 안보개념과 함께 다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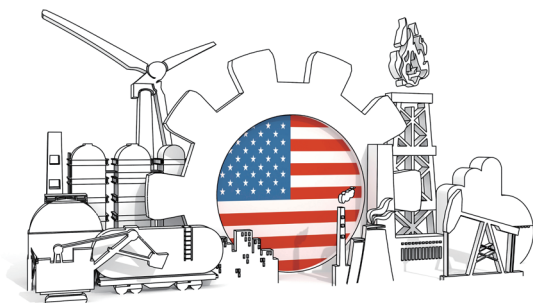
최근 세계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동남아 등 저비용 고효율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던 중심 글로벌 공급망이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를 거치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미국에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 대신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단일질서(Global Order)로 재편하고, 상호관세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미국 제조업 기반 복구,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재설계(Reshaping)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어디로 수출할 것인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어디로 진출해야 하는지? 세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있고 그 해답은 모든 질문의 답은 현장에 있듯이 문제가 야기된 미국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해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호관세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무역대표부는 2024년 4월 1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요 관세정책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관세 부과, 무역적자 규모가 클수록 상호관세를 높도록 설계하였다.

최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하여 부과한 펜타닐·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2025.8.29).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수출입금지, 경제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한 법으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근거로 활용된 IEEPA에는 관세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판결근거로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10월 14일 이전까지 상고 시 대법원 판결시까지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상호관세의 위법성과 별도로 상호관세의 1심인 국제무역 법원의 전면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 즉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의 집행을 전면금지하는 판결의 범위 적정성은 CIT로 환송(remand) 결정하였다.

향후 행정부의 항소를 전제로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대법원이 상고허가(certiorari) 기각하는 경우 사건은 다시 CIT로 환송된다. 둘째, 대법원이 상고허가 인용(grant) 하는 경우 대법원 본안심리를 거쳐 판결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구리(50%), 완성차·자동차 부품(25%) 부과하였고, 반도체 및 의약품은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407개(세부 HS CODE기준 428개) 파생상품이 관세대상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미 무역협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면화된 발표가 없어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사이의 상호관세 등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율 인하 및 관세 휴전¹⁾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중국시장용 인공지능 반도체 H20 수출허용, 중국의 희토류 7월 대비 수출 증가²⁾ 등 디커플링 간극 축소 노력이 진행중인 모습도 전개되고 있다. 美 수입 희토류의 약 70% 중국에 의존 및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글로벌 생산의 75% 점유, 美 산업 핵심부품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 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³⁾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2025.8.29)하였다. 이는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서 미-중이 경쟁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정책과 연계하여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지난 1/4분기 관세 발효 전 선제적 수입(Frontloading)이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4분기에는 수입이 감소하며

1) (美→中) 145%(4.9일) → 30%(5.12.-8.11. / 8.12.-11.11.)
(中→美) 125%(4.9일) → 10%(5.12.-8.11. / 8.12.-11.11.0

2) 2025.7월 중국, 희토류 619톤 美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6월比 76% 급증

3) 美 상무부가 VEU 지위를 승인한 외국 사업장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장비 등 특정 품목을 개별허가 없이 반입 가능 (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의 종류는 기업별 상이)



순수출이 증가, 기술적으로 2분기 GDP성장률이 3.0%로 1/4분기 $\Delta 0.5\%$ 대비 반등하였다.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적자 5,827억 달러로 사상 최대, 전년 동기 4,212억 달러에서 38.3%(1,615억 달러) 급증하였으나, '25년 2분기 수입은 전분기 대비 30.3% 급감했으며, 이는 1분기 관세 인상 대비를 위한 재고 비축 후 후속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순수출은 수출(0.4% $\rightarrow$ $\Delta 1.8\%$)보다 수입(37.9% $\rightarrow$ $\Delta 30.3\%$)이 더 큰 폭으로 감소, 기술적으로 성장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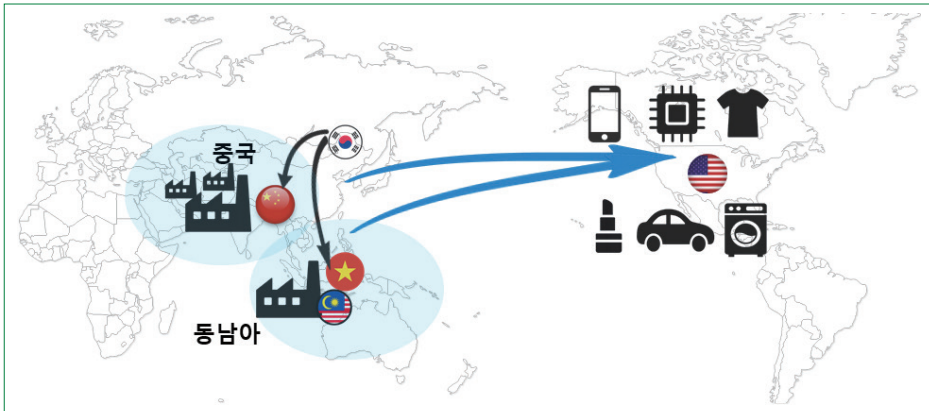
4월부터 관세 수입(특정소비세 포함) 급증하였는데 2025년 2분기 동안 694.2억 달러로 수입실적이 기록되어 전년 동기 230.2억 달러 대비 +201.5% 증가하였다.

반면, 7월 기준 실업률 (4.2%)은 전월보다 상승, 경제활동참가율(62.2%)은 소폭 하락하고 실업자수도 증가하였으나, 개인소비(2025.1Q 0.5% $\rightarrow$ 2025.2Q 1.4%)는 재화(0.1% $\rightarrow$ 2.2%) 소비 및 서비스(0.6% $\rightarrow$ 1.1%) 소비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소비자 물가는 '25.6월 중 PCE물가상승률(2.6%, 전년동월대비)은 서비스(3.5%) 상승률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재화(0.1% $\rightarrow$ 0.6%) 오름세가 확대되며 전월(2.4%)대비 상승중이나, 관세의 소비자물가 전가효과 일부 시현, 아직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 실물경제는 기존의 저임금, 고효율 국가 위주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던 글로벌 소싱 다변화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제조업 생산 확대를 유도 중으로 관세를 통한 경제안보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동시에 도모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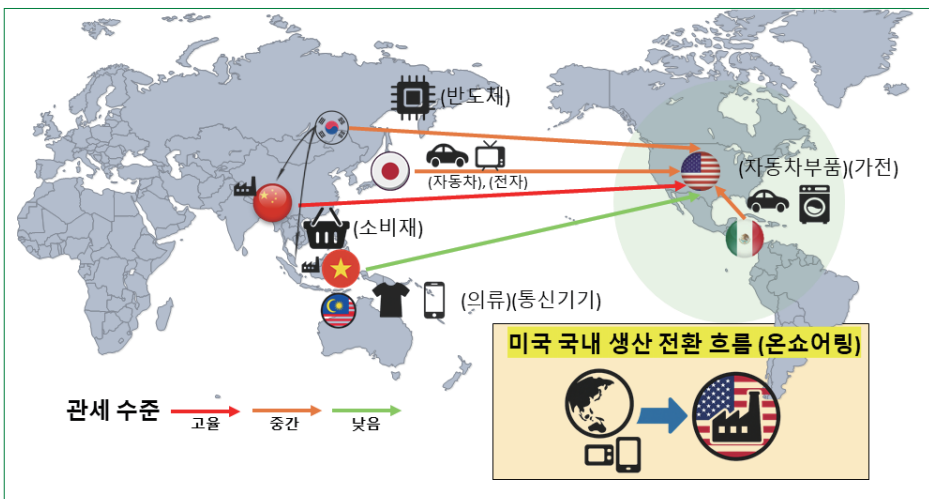


〈트럼프 이전 글로벌 공급망〉



BCG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가치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18% 증가, 인도는 44%증가, 그리고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65%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중심에서 차이나 +1, 차이나+2로 공급망이 트럼프 관세부와 이전부터 다변화가 시도중이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이후 글로벌 공급망〉



관세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리스크에 대비하고 생산기지를 최종 소비시장에 근접한 거리에 보유하기 위한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어 현지에 기반을 보유한 진출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현지 노동시장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관점에서는 유리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응방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시장에 직접 진출, 시장과의 거리를 좁히는것이다.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투자금액을 비교하더라도 중국 대비 미국대상 법인설립과 투자금액의 차이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8개년(2017~2025년 1분기) 韓 신규 해외법인 설립 수 / 해외 투자액 비교〉

(단위: 건 / 백만불)

연도	한국의 해외법인 설립 수			한국의 해외 투자금액			비고
	① 미국	② 중국	① - ② 격차	① 미국	② 중국	① - ② 격차	
2017	553	538	15	15,336	3,226	12,110	트럼프 1기
2018	549	490	59	11,236	4,805	6,431	
2019	663	468	195	15,763	5,876	9,887	
2020	524	244	280	15,215	5,131	10,084	
2021	631	262	369	27,931	6,754	21,177	
2022	698	190	508	29,817	8,538	21,279	바이든
2023	708	203	505	27,995	1,890	26,105	
2024	687	275	412	22,294	1,929	20,365	
2025.1Q	156	56	100	4,648	540	4,108	트럼프 2기

자료원 : 수출입은행

미국 바이어들은 2분기 이후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발 수출물량에 대해 既 계약 물량에 대한 실제 수입 축소, 차기 발주량 감축 등 관세의 물량효과 및 공급자 대상 전가 가격효과 움직임 동시 발생하고 있으며, 관세 가격효과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직수입보다 미국 현지 공장 보유업체로부터 조달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 현지 진출 과정에서 붙어진 비자 등 제도적인 부분, 현지 인력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장기적으로 현지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훈련과 주재원, 현지 직원에 노무관리 등은 앞으로 투자진출 확대와 병행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한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관세장벽을 뛰어넘는 동시에 비용최적화, 리스크 최소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미국 직접 투자진출 경향과 병행하여 아시아 등 생산기지 활용, 대미 수출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국중심에서 China+1을 한층 다각화하여 품목별로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기존에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외 기존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완성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던 구조에서 탈피 China+1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우리 대기업의 주력수출 품목과 관련된 중소, 중견기업의 부품, 공급망 생태계의 대미 수출현황을 2024년 상반기 대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 들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간 동남아 등에 진출한 현지진출기업들은 주로 주재국 시장을 겨냥하거나 로컬 무역협정을 염두에 두고 진출하였으나, 동남아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동 국가에 진출한 우리현지진출기업들의 대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등도 비록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중국보다는 낮은점, 상대적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있는 점, 여전히 매력적인 노동시장 등 상대적인 장점을 활용가능하다.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의 대미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수입현황등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액이 줄어 들고 우리기업의 생산기지가 다수 진출한 동남아 등 타국가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현지에 소재한 우리 진출기업의 대미수출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된다면, 동남아 등으로 진출을 동남아 내수시장 진출이 아닌 대미 진출기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기: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미국 수입현황〉

(단위: 달러)

연번	국가	2024 상반기	2025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율
1	베트남	6,039,714,033	12,606,479,950	6,566,765,917	108.7%
2	인도	4,942,648,935	12,547,455,729	7,604,806,794	153.9%
3	태국	3,724,223,890	7,317,441,463	3,593,217,573	96.5%
4	중국	20,151,872,166	14,880,422,933	- 5,271,449,233	-26.2%
5	멕시코	4,668,245,629	5,836,861,606	1,168,615,977	25.0%
6	타이완	3,372,126,946	3,793,237,922	421,110,976	12.5%
7	말레이시아	2,012,425,476	3,372,168,108	1,359,742,632	67.6%
8	이스라엘	551,128,575	542,872,577	- 8,255,998	-1.5%
9	필리핀	327,054,946	417,764,363	90,709,417	27.7%
10	캐나다	483,120,551	489,851,753	6,731,202	1.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통계, 무투센터 작성

〈반도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미국 수입현황〉

(단위: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율
1	대만	14,526,846,964	26,283,400,208	11,756,553,244	80.9%
2	말레이시아	7,900,699,130	8,912,672,694	1,011,973,564	12.8%
3	베트남	6,751,542,368	6,662,251,717	- 89,290,651	-1.3%
4	한국	4,551,827,681	5,293,849,549	742,021,868	16.3%
5	중국	4,602,711,037	4,325,510,055	- 277,200,982	-6.0%
6	멕시코	1,943,371,479	2,633,688,983	690,317,504	35.5%
7	일본	1,588,076,163	1,808,649,667	220,573,504	13.9%
8	이스라엘	2,232,331,506	2,187,101,103	- 45,230,403	-2.0%
9	태국	3,571,848,385	1,627,547,042	- 1,944,301,343	-54.4%
10	인도네시아	247,890,128	1,195,477,552	947,587,424	382.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통계, 무투센터 작성



〈평판디스플레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미국 수입현황〉

(단위: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률
1	일본	154,537,935	213,262,354	58,724,419	38.0%
2	대만	140,716,183	172,092,675	31,376,492	22.3%
3	중국	289,227,181	209,190,283	- 80,036,898	-27.7%
4	한국	88,199,137	163,519,005	75,319,868	85.4%
5	베트남	43,631,455	58,938,636	15,307,181	35.1%
6	멕시코	48,647,984	42,793,028	- 5,854,956	-12.0%
7	태국	10,488,788	14,659,256	4,170,468	39.8%
8	독일	5,916,332	5,932,563	16,231	0.3%
9	말레이시아	985,547	5,586,352	4,600,805	466.8%
10	벨기에	17,128	2,249,350	2,232,222	13,032.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통계, 무투센터 작성

셋째, USMCA를 활용한 미 공급망 진입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이 완만한 감소를 보였고 중국,일본, 한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출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미국 수입현황〉

(단위: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률
1	멕시코	34,004,749,725	32,987,571,052	- 1,017,178,673	-3.0%
2	캐나다	9,289,449,126	8,499,935,655	- 789,513,471	-8.5%
3	중국	9,094,046,556	8,067,737,644	- 1,026,308,912	-11.3%
4	일본	7,137,356,209	6,815,924,740	- 321,431,469	-4.5%
5	한국	5,987,332,101	5,200,173,950	- 787,158,151	-13.1%
6	독일	6,282,991,651	4,902,737,133	- 1,380,254,518	-22.0%
7	대만	2,159,654,241	2,214,766,047	55,111,806	2.6%
8	인도	2,040,033,946	2,148,580,556	108,546,610	5.3%
9	태국	1,399,142,179	1,604,496,873	205,354,694	14.7%
10	이탈리아	1,453,918,223	1,323,379,424	- 130,538,799	-9.0%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률
11	베트남	1,021,059,420	1,227,215,755	206,156,335	20.2%
12	말레이시아	396,523,485	682,244,400	285,720,915	72.1%

〈기계류: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미국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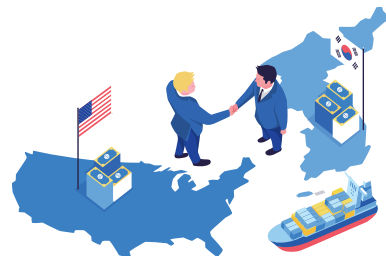
(단위: 달러)

연번	국가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증감률
1	멕시코	33,589,277,689	53,183,236,425	19,593,958,736	58.3%
2	대만	13,950,651,581	30,882,314,042	16,931,662,461	121.4%
3	베트남	10,178,115,639	19,793,935,833	9,615,820,194	94.5%
4	중국	31,748,274,310	22,918,818,773	- 8,829,455,537	-27.8%
5	일본	15,080,735,361	14,083,876,090	- 996,859,271	-6.6%
6	독일	13,889,997,076	12,729,547,355	- 1,160,449,721	-8.4%
7	캐나다	11,551,856,881	11,800,728,715	248,871,834	2.2%
8	태국	4,710,650,622	7,888,131,016	3,177,480,394	67.5%
9	이탈리아	6,338,006,380	5,956,364,648	- 381,641,732	-6.0%
10	한국	6,595,087,639	5,650,523,532	- 944,564,107	-14.3%

이와 같이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별 대미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상호관세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대미 수출기지를 한국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외에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자동차 부품 등은 USMCA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호관세의 효과가 미국 거시경제 실업률,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임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 직접 생산기지 진출 등도 상호관세 판결 등을 지켜보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니혼게자이 신문과의 8월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처럼 녹아갈 존재”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아내릴지는 뜨거운 노동 시장과 차가운 물가상승률에 달려있다.



* 이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으로 KOTRA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